사당패 · 굿중패… 조선불교 고난사



이상근의
聖寶流轉

㉓ 조선불교 분투기



법주사 선희궁원당 전경. 솟을삼문 형식으로 유교 사상이 체현됐다.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법주사에 원당을 세운 연유로 솟을삼문이 섰다. 지금은 조사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의 불교 탄압

이전 연재에서 다뤘지만 고려시대 승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었다. 정확한 인구 통계가 없지만 고려 시대 인구를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로 추정한다면 70만 명이 하한선이고 상한선으로 잡으면 무려 150만 명이다.

물론 그 숫자의 8할은 공부하는 수행승이 아니라 비승비속의 삶을 살아가던 수원승도(隨院僧徒)라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행승' 이었던 '하급승려' 였던 숭유억불을 내세운 조선의 건국으로 궁지에 몰리기는 매한가지였다.

조선의 불교 탄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었다. △사찰과 승려 수 제한 △사찰의 경제 기반이었던 토지와 노비의 몰수 △승려 신분 하락과 망신주기다.

첫째, 사찰과 승려 숫자의 제한이다. 실록에는 '8000 명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한꺼번에 줄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학자들은 대략 조선 건국 후부터 조선 전기까지 10만 명, 조선 후기 5만 명, 일제 강점기 8000 명 정도로 승려 숫자를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승려의 1할도 안 되는 수치다. '감원' 1순위는 젊은 승려였다. 태종 2년 6월 18일자 예조에서 올린 상소문의 결론 부분을 보자.

"그리고 승도(僧徒)들로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백성으로 삼고, 승니(僧尼)로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남편이 죽어서 수신(守信)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머리를 기르고 시집가도록 허용하소서."

사실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력이 될 수 있고 '세금' 이 될 수 있는 자를 먼저 환속시키는 게 분명 유리했을 것이다.

사찰 수 제한도 있었다. 태종 6년에는 종파별로 나눠 242개의 사찰만을 '공식적' 으로 인정했다. 세종대에 이르면 종파를 아예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하고 각각 18개, 합하여 36개의 사찰만 '공식적' 으로 인정했다.

둘째, 사찰의 경제 기반인 토지와 노비의 몰수였다. 태종 때 몰수한 토지와 노비만 각각 1만 7200결, 8600명이었다.

결이라는 단위는 소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연유로 시대와 농사 기법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단위다. 좀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조선 중기 연암 박지원이 측정하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사방 100보, 대략 22,500㎡가 한 결에 해당한다. 평수로는 대략 6,800평이다. 이걸 1만7,200결로 곱하면 387,000,000㎡다. 감이 잘 안 올지도 모르겠다. 대략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두 배 크기다.

세 번째, 신분 하락과 홀대하기다. 승려는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상여꾼과 함께 팔천(八賤)이 되었다.(승려를 팔천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실록에 기록이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통감에 승려가 팔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전부터 승려가 천민으로 분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당연히 도성출입은 당연히 금지되었다. 여기에 사적인 폭력도 부지기수였다. 유생들이 절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성보를 훔쳐오는 일이 빈번해 왕까지 나서서 '자제하라' 고 말렸을 정도다. 승려가 유람을 떠나는 선비들의 경마잡이가 되는 일도 흔했다.

> **사찰, 승려 제한 · 신분하락 등**
> **儒 숭상 조선, 불교 제재 강화**
> **사찰 재정 피폐… 자구책 고심**
> **왕 · 왕비 명복기원 원찰로 변화**
> **사당패 등 연희집단 출현하기도**

조선 사찰이 살아가는 방법

조선 시대 '공식적' 으로 승려로 살아가는 방법은 도첩을 받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도첩을 받을 수 있었던 숫자는 대략 3년에 60명 안팎이었다. 물론 예외가 있었다. 전쟁에 동원되거나 성을 축조할 때 승려들을 동원했고 도첩으로 유인했다.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사찰이 통째로 왕실의 후원을 받는 방법이었다. 왕이나 왕비의 명복을 빌어주고 왕실원찰이 되었다. 사찰에 따라 홍살문이나(용주사, 동학사 등) 솟을삼문이(법주사, 통도사 등)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모두 '유교식' 건물이지만 왕실과의 관계 때문에 절집에 자리 잡았다. 여하튼 양반들도 이런 절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부수거나 훔치지 못했다. 게다가 이런 절들은 공명첩(空名帖)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다. 공명첩을 받은 승려와 사찰은 군역(軍役)과 세금을 면제받았다.

특이한 경우지만 해외 망명 시도도 있었다. 1419년(세종1)에 승려 30명이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로 도망친다. 세종은 '절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명나라) 황제는 불교를 숭상하니 당연히 도망치고 싶었을 것' 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이밖에 예전부터 이어져온 사찰계를 조직하는 등 부조 활동도 있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했다. 자연스레 살림살이가 줄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걸립패, 사당패의 등장

사찰 경제가 피폐해지는 건 물론 국가적인 위기나 기근 등이 닥치자 사찰 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걸립패, 굿중패, 사당패 등 연희를 앞세운 집단의 출현이다.

걸립패는 무리를 지어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목탁이나 꽹과리를 치며 축복하는 염불을 하고, 돈이나 쌀을 시주를 받았던 집단이다. 굿중패라고도 하는데 사전에는 이들이 승려였다고 명토박아 말하고 있다.

신윤복의 '노상탁발' 이라는 그림을 보자. 조선시대는 승려들의 복장이 한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의식이 진행될 때만 가사를 걸쳤다. 그러니 복식으로는 그 사람이 승려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삭발은 다르다. 옛 그림에서 승려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삭발이 유효하다. 그런데 신윤복의 노상탁발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이는 법고를 치고 있는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노상탁발'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려 시대 수원승도처럼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들은 반드시 사찰의 신표를 제시하고 터굿, 성주굿, 조왕굿, 샘굿 등을 해주면서 수입을 얻었다.

호구(餬口, 끼니를 이어감)를 위한 일이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당패로까지 내려오면 멀리 나가도 한참 멀리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당패는 모갑(某甲)이라고 해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만 남자였고 주요 구성원은 여자였다. 모갑 외에 남자들도 있었지만 모두 사당에 붙어먹는 기생자들이었다. 이들이 내세운 건 수입으로 불사(佛事)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이들 역시 걸립패와 마찬가지로 사찰의 신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을 수령들은 그들이 연희를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지 않았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연희 때 받는 돈이 아니었다. 해웃값(解衣債)이라고 해서 육체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다. 사회문제가 되자 19세기에는 아예 여성이 낀 사당패를 단속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사당패가 등장한다. 사당패와는 달리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는 역시 사찰의 신표를 지니고 다니며 불사를 이유로 놀이를 벌였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일정한 보수도 없이 숙식만 제공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 밤을 새워 가며 놀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입원은 따로 있었다. 계간(鷄姦)이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의 잠자리를 상대하며 수입을 얻었다.

이들이 실제 사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안성 청룡사나 남해 화방사 등에는 이들이 흔적이 남아 있다. 실제 시주를 했던 기록도 있다. 의왕 청계사 동종 등에 그 명문이 남아 있다. 또 남양주 흥국사나 통도사의 감로도에는 이들의 존재를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찰에 의탁하기보다는 독립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곳곳에 '불당골'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절에 살던 사람들이 '유민' 이 되어 떠돌며 호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사당패나 남사당패의 연희 전통 그리고 민중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이나 글들이 많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평가겠지만 불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결국 나락으로 추락했던 모습의 일면일 뿐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